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9, pp. 203-217, 2020

ISSN 2233-4890 / eISSN 2713-6353
https://doi.org/10.15207/JKCS.2020.11.9.203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의 특성 및 영향 요인에 관한 융합연구

최정아[1], 서준호[2], 양지연[3*]
[1]금오공과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2]금오공과대학교 응용수학과 학생, [3]금오공과대학교 응용수학과 교수

Convergence Study on Career Development Process and Influencing Factors

Jung-Ah Choi[1], Jun-Ho Seo[2], Ji-Yeon Yang[3*]
[1]Professor, School of Liberal Arts,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2]Student, Dept. of Applied Mathematics,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3]Professor, Dept. of Applied Mathematics,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특정전공 대학생들이 해당전공을 선택하기까지 전 학령기에 걸쳐 형성되는 진로발달과정의 특성 및 영향 요인을 조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커리어오그램을 사용하여 글로벌통상학과와 영문학과 대학생들이 초·중·고·대학에 이르는 진로발달과정자료를 수집, 텍스트마이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과별 진로발달양상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달시기별 진로목표에 영향을 주는 주요 맥락적 요소는 부모와 교사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사의 경우 전 학령기 중 중학교 시기에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는 가정환경 및 친구와 함께 개인의 진로포부수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향후 진로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빅데이터와 상담학 두 분야의 융합을 통한 학령기 진로지도 및 교육 분야에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융복합 연구, 진로발달, 커리어오그램, 텍스트마이닝, 모형선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erform a convergence study for investigating main features and influencing factors in career development process, throughout the whole periods of education, that might influence their ultimate choice of majors. We collected data of career development process at the elementary, middle, high school, and college levels using career-o-grams, for the college students who majored in English Lang/Lit and Global Commerce, and we applied text mining techniques for qualitative data analysis. Two major factors influencing career goals were parents and teachers. In particular, teachers were most influential in the career decisions at the middle school level. Teachers, family situations, and peers showed a negative impact on career aspiration. The findings would serve as a guide for career consultants and education program developers.

Key Words : Convergence study, Career development, Career-o-gram, Text mining, Model selection

The work reported in this paper was conducted during the sabbatical year of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2019.
*Corresponding Author : Ji-Yeon Yang(jyang@kumoh.ac.kr)
Received May 25, 2020 Revised August 30, 2020
Accepted September 20, 2020 Published September 28, 2020

1. 서론

직업은 삶의 근간이라는 말이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직업이 단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직업은 개인의 생활양식을 결정지으며, 사회에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자, 자아를 실현하는 매개체이다. 이렇듯 직업이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 그러한 선택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아왔다. 전 생애를 걸쳐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을 '진로발달과정'이라 한다. 그동안 이러한 진로발달과정에 능력 등 개인 내적 특성과 직업이 지니는 사회적 지위와 같은 개인 외적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1]. 하지만 포스트모던 시기가 되면서, 그동안 간과되었던 환경적 맥락이 개인 외적 특성에 추가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에 시대적 상황, 가정환경, 사회적 인물과 주변인물 등이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2]. 이에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다룬 실증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전 학령기를 거쳐 형성되어온 진로발달과정을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왔다[3]. 환경적 맥락을 포착하는 도구들이 이미있지만, 음성, 혹은 텍스트 등 다양한 매체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이를 연구에 활용하는데 상당한 난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커리어오그램(Career-O-Gram) 역시 진로발달과정에 환경적 맥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발된 도구이다[2]. 연령에 따라 개인의 진로목표가 어떻게 변화하고, 시기별 진로목표 형성이 어떠한 지지와 방해를 받으며, 개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떠한 진로관이 형성되는지를 포착할 수 있는 도구이다. 때문에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조력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으며, 많은 데이터가 축적될 경우, 발달단계별, 국가별, 유사한 사회문화권별 공통적인 진로발달상의 어려움을 포착하고, 조력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대량으로 데이터화하기 쉽지 않아, 그 동안 진로상담분야의 연구에 활용되지 못해 왔다. 그런데 최근 대량의 텍스트를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접근법이 등장해 커리어오그램을 활용한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 바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다.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의 유형 중 하나로, 텍스트 자료에 대하여 자연어 처리 기술과 문서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패턴 또는 관계를 추출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4,5].

따라서 커리어오그램을 통하여 수집된 질적 자료들을 텍스트 마이닝 방법으로 분석할 경우, 학령기를 아우르는 기간을 거쳐 드러나는 진로발달과정상의 양상을 이 과정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요소들과의 관계를 조망함으로써 추출해 낼 수 있으며, 진로발달과정동안 보여지는 패턴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소수의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드러내고자 한 기존의 질적 연구 분석방법은 실제 현상을 더 잘 드러내는 장점을 지닌 반면, 일반화 가능성을 타협해야 하는 한계를 지녀왔으나, 보다 다수로부터 수집한 질적 자료를 사용할 수 있고, 이로부터 패턴이나 관계를 추출해 낼 수 있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보다 질적 자료의 양적 자료화에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기존 양적 연구는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주로 변인간 관계를 연구하면서, 척도를 사용해 왔는데, 이는 연구대상이 실제로 인식하는 주관적 경험을 반영한다기 보다, 연구자의 가설에 입각해 변인을 선택하여, 이러한 가설에 맞추어 현상을 연구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반면, 커리어오그램은 자기보고식 척도가 아니다. 즉, 진로발달과정에서 각 시기별로 자신이 품었던 진로목표가 무엇이었고, 그 진로를 선택하거나 포기하는데 영향을 준 맥락적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개방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개인의 주관적 실제에 대한 반영을 극대화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개개인별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접목할 경우, 우리나라 대학생 혹은 동일 전공자별 진로발달과정이 공통적으로 어떤 경험들을 거치고,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패턴이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결과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녀, 방법론적인 융합을 시도해 볼 만한 유용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대학생은 발달단계상 구직준비라는 발달과업을 현안으로 두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이 현재의 진로목표를 형성하기까지 어떠한 진로발달과정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전 학령기를 아울러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 집단뿐 아니라 학령기 전반에 걸쳐 필요한 조력의 시기, 내용 및 방법을 모색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진로발달과정이 유사 전공군별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특정 분야에 진로흥미를 지닌 집단에게 필요한 조력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며, 유사 분야별 진로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력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

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재의 진로목표를 형성하기까지 전 학령기동안 이루어져온 진로발달과정을 커리어오그램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국내 대학생들이 학령기 진로선호를 형성, 유지 혹은 포기하는 데 맥락적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하며, 이러한 진로발달과정이 특정 전공집단에서는 어떠한 경험으로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목표는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

둘째,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에서 어떠한 긍정적, 부정적 맥락적 요소들이 작용하고, 그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에서 진로포부수준의 형성에 어떠한 맥락적 요소들이 작용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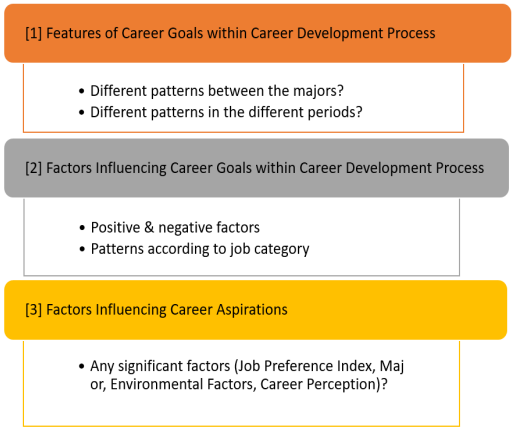

Fig. 1. Research Questions.

2. 이론적 배경

2.1 학령기 진로발달과정

진로발달이론은 개인의 직업선택을 발달적으로 조망할 필요에 의해 1950년대 이후에 도입된 이론이다[6]. 대표적인 진로발달이론가인 Super는 진로발달이 성장기(0-14세), 탐색기(15-24세), 확립기(25-44세), 유지기(44-65세), 쇠퇴기(65세-)의 다섯 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하였다[7]. 또한 각 단계는 하위 단계를 거치는데, 성장기는 환상단계(4-10세), 흥미단계(11-12세), 능력단계(13-14세)로, 탐색기는 결정화 단계(15-17세), 구체화단계(18-21세), 실행 단계(22-24세)로, 확립단계는 정착, 공고화, 발전단계로, 유지단계는 보유, 갱신, 혁신 단계로, 쇠퇴단계는 감속, 은퇴계획, 은퇴생활 단계로 세분화 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학령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살펴보면, 성장기 중 환상단계에서는 욕구에 따라 역할놀이 등 상상과 환상을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되며, 흥미단계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장래희망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능력단계에서는 능력을 중요시하기 시작하여 직업을 얻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탐색단계 중 결정화 단계에 이르러서는 욕구, 흥미, 능력, 가치, 현실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로에 대한 선호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며, 구체화 단계에서는 그러한 선호 직업들 중 특정 직업으로 진로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게 되며, 실행 단계에서는 해당 직업을 구하기 위해 실천에 옮기게 된다.

Super는 진로발달단계별로 제시한 나이대 사람들의 진로발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러한 발달적 경향성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8]. 한편 Gottfredson의 진로발달이론은 연령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직업선택에 있어 무엇부터 포기하고, 무엇을 가장 마지막에 타협하는지에 대해 조망하였다. 이를 제한타협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양상은 있지만, 무엇인가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흥미부터 포기하고,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성유형을 가장 포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9]. 하지만 상이한 연구결과들로 인해 이러한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고 있다[10]. 이상의 진로발달이론을 종합해 보면, Super의 이론은 연령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은 진로의 영역에서 어떠한 발달을 이루어가는지에 초점을, Gottfredson의 이론은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끝까지 타협할 수 없는지에 관심을 둔 것을 알 수 있다[10]. 이러한 이론들은 사람들의 진로발달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 주었으나, 진로발달과정을 오롯이 조망하는 데에는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해당 이론들이 제안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져온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가 이 이론가들의 개념적 구분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해당 이론들을 다루기 위해 사용되어 온 연구방법이 주로 개인의 심리적 변인들 위주로 분절되어 이루어져, 삶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지녀왔다[11,12].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삶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들이 유기적인 관련성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조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이를 위해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진로발달과정을 조망하고자 하는 진로발달이론이 제

안되었다[6]. 구성주의적 진로발달과정은 진로를 전생애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으로 보는 기존의 진로발달이론에서 확장한 이론이다. 대표적인 이론가인 Savikas는 사람들의 진로발달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 개인 내부적인 맥락과 사회문화 및 환경적 맥락, 이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10]. 이러한 구성주의 진로발달과정을 이해하는 도구 중 하나가 커리어오그램이다.

2.2 커리어오그램

커리어오그램(Career-O-Gram)은 개인의 생애를 거쳐 이루어진 진로발달과정을 조망하기 위해 Thongre와 Feit가 고안한 도구이다[2]. 개인의 직업적 선호가 형성되거나 유지 혹은 단념되는 진로발달과정상의 각 주요 시점에 영향을 미친 개인 및 사회문화 및 환경적 맥락 요소들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직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텍스트에 도형과 화살표라는 시각적 요소들이 첨가되었다. 커리어오그램은 개인의 전생애에 걸쳐 직업적 선호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왔고, 이에 영향을 주었다고 당사자가 인식하는 여러 맥락적 요소 및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유용한 질적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해왔다. 이는 가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시기별로 형성되었던 개인의 진로 선호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소들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고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한점으로 인해 진로발달과정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주로 소수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질적 분석하는 방법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13]. 이러한 방법들은 진로발달과정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인식을 극대화하여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유사한 진로선호를 지닌 사람들이 지니는 경험과 인식에 영향을 주는 여러 맥락적 요소들로부터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는 절충점을 찾기에는 방법론상의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커리어오그램을 활용할 경우, 유사한 진로선호를 지닌 사람들(가령, 특정 학과 학생들)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도식화된 다이어그램 안에 자신의 진로발달과정을 담을 수 있어, 양적인 속성이 가미된 질적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2.3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학령기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기를 의미한다. 이 시기를 연구에 따라 청소년기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명명방식은 다양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라 명명하였다.

앞서 2.1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에 대한 연구방법은 주로 개인의 심리적 변인들 위주로 분절되어 이루어져 왔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7년간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을 연구한 국내 연구 109편 중 103편이 진로발달과정을 구성하는 여러 진로변인들을 사용한 연구였고 질적 분석을 한 연구는 단 6편에 불과하였다[14]. 진로발달과정에 대한 양적 연구들에서 사용한 관련 변인들은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등 매우 다양하며, 여기에 진로발달과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가령, 학업성취도, 낙관성, 부모, 사회 등)까지 포함하면 변인의 수가 더욱 증가한다.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에 대해 변인을 다루어 실시한 연구들로, 학령기 학생들의 긍정적 자기귀인이 진로성숙도를 예측한다는 연구[15], 도시 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장벽을 확인하고 극복하는 능력이 직업명료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16], 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직업쪽으로 선택을 하기 위해, 자신의 내적 고유성의 실현을 희생시키는 경향성이 아동기부터 드러난다는 연구[17,18], 사회계층이 진로발달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19,20], 사교육 투자비용이 진로발달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21], 아르바이트가 진로발달과정에 주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결과들[22-24],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도가 진로발달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25] 등이 있다.

한편, 질적 연구는 입학사정관전형 출신 직장인 3명을 대상으로 해당 입학전형 출신 직장인의 진로발달과정을 탐구한 연구[26], 전과나 편입경험이 있는 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발달과정에서의 경험을 탐색한 연구[11] 등 소수의 특정대상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진로발달과정을 설명하는 변인들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으며, 변인이 주는 영향력에 대한 결과가 상반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해 온 질적 자료 분석방법은 질적 연구가 추구하는 바에 매우 충실한 연구들로 이루어져 온 장점이 있는 반면, 그로 인해 일반화를 추구할 수는 없다는 방법론상의 한계점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사용되어온 연구방법들로는 수많은 변인들 중에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망에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자신의 진로선호를 형성, 유지 혹은 포기를 하는데 영향을 받았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사자는 무엇이라고 인식하는지, 이러한 과정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이 있는지 혹은 유사한 진로선호를 지닌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데 제한점을 지니고 있어, 이러한 연구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법의 고안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을 삶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사회적 변인들이 유기적인 관련성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조망하고자 질적 연구 도구인 커리어오그램을 사용하여 탐색하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융합하여 질적 연구 자료로부터 양적인 속성을 절충하여 국내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사한 진로선호를 지닌 사람들의 진로발달과정에서 차별점이 드러나는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자료 수집 및 변수 설명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수도권 A대학의 영어영문학과와 글로벌통상 전공 신입생이다. 참여자들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커리어오그램을 실시하였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84명(영어영문학 35명, 글로벌통상 40명, 미표기 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커리어오그램 질문지는 '현재 시점의 진로목표'를 적고 소급해서 '발달시기별 진로목표', 진로목표에 영향을 준 '맥락적 요소', 진로목표에 대한 개인의 '진로관'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령기에 희망했던 장래의 직업명을 적고, 해당 진로목표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맥락적 요소 즉, 당시에 개인이 처한 외부 환경적 상황, 내적 특성, 그리고 개인에게 영향을 준 인물을 작성하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개인에게 형성된 직업에 대한 관점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3.2 전처리 방법

자료는 텍스트로 이루어져, 분석 전에 다음과 같은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구두점, 기호, 숫자, 불용어 및 기타 출현 빈도가 높지만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어들(직업, 희망, 생각, 중시, 걱정 등)은 사전에 제거하였다. 또한 오타를 수정하고, '발달시기별 진로목표'인 직업명이나 진로목표에 영향을 준 '맥락적 요소'의 명칭이 유사한 경우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였다. 예를 들어 무역가, 무역관, 무역중계사, 무역전문가, 무역인 등은 "무역사"로, 선생님, 교사, 샘 등은 "교사"로, 부모님, 엄마, 아빠, 아버지등은 "부모"로 통일하였다. 또한 응답이 모호한 경우, 주요 키워드를 사용하여 "막연함", "흥미자각단계", "목표상실" 등의 용어로 변환하였다. 반면에 각 응답자는 한 질의에 대하여 여러 개의 응답 기술이 가능하였는데, 복수 응답인 경우 이를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진로목표에 영향을 준 '맥락적 요소'의 경우, 응답에 들어있는 주요 키워드를 이용하여 다음의 용어로 통일하여 분류하였다: "사회적상황", "가정상황", "학교", "교외활동", "주변인물", "개인특질", "대중매체", "인식미형성". 이 항목 역시, 복수 응답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한 응답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여러 개일 수 있다.

또한 발달시기별 개인의 '진로관'은, 응답의 주요 키워드로부터 응답자의 성향을 살펴보고, 진로관 관련 선행연구인 박용호와 박소연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분류기준인 "행복추구형", "현실직시형", "성장지향형"을 차용하였다[3]. 또한 본 연구에서 진로관이 미형성된 사례들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러한 사례는 "인식미형성"으로 분류하였다. "행복추구형"은 직업을 행복 추구 및 꿈을 실현하는 기회로 인식하며, "현실직시형"은 직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적 수단을 얻는 통로로 이해하고, "성장 지향형"은 직업을 자신의 인생에 대한 투자나 성장의 기회 제공의 통로 등으로 이해하는 유형이다[3]. 역시 복수 응답이 가능하여, 한 응답자가 여러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다.

3.3 분석 방법

각 응답자의 '발달시기별 진로목표'인 희망 직업에 대한 연봉 수준 및 직업 분류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로정보망 커리어넷(career.go.kr)을 활용하였다. 커리어넷의 직업에 관한 기술을 참조하여 가장 유사한 직업을 선택한 후, 해당 직업의 연봉 및 직업 분류를 확인하였다. 특히 직업 분류는 각 직업에서의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능력, 기질 등을 중심으로 전체 직업을 구분한 것으로, 경영분야 숙련직, 경영분야 전문직, 공학분야 전문직, 과학분야 전문직, 농업천연자원분야, 서비스 숙련직, 서비스 전문직, 소비자경제분야, 언론문학분야, 예술분야 숙련직, 예술분야 전문직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일부 막연한 응답에 대해서는 연봉 산정이 어려워 연봉 비교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응답들에는 "막연함", "즐거움 추구", "행복 추구", "멋짐 추구", "부유함", "사업가"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학과별(영어영문학과, 글로벌통상학과) 또는 '발달시기별(초등, 중등, 고등학교) 진로목표'인 희망직업의 연봉과 직업 분류를 살펴보고 그 패턴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많이 선택된 희망직업과 시기와 상관없이 계속 등장하는 희망직업을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학령기 희망직업 선호도와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달시기별 희망직업 선택에 있어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맥락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를 시각화하여 그 패턴을 찾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진로포부수준 형성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진로포부수준을 사회적 지위의 수준으로 간주하고, 이를 연봉수준으로 치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각 참여자에 대해 여러 시기에 걸친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혼합모형(mixed effects model)을 검토하였다. 혼합모형은 임의효과와 고정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모형으로, 각 참여자의 고유한 속성이 임의효과에 반영된다. 이 때 각 응답자들은 모집단으로부터의 샘플로 간주되고 전반적인 분산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7]. 독립적인 외생변수가 희망직업의 연봉에 미치는 영향은 고정효과로서 검토된다. 혼합모형의 결과를 일반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el)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개인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검토하는 독립변수의 개수가 많아 먼저 단변량분석(univariate analysis)을 실시하며, 과대적합(overfitting) 문제를 줄이기 위해 모형선택의 과정을 거쳐 최종 모형을 제시한다. 모형선택 방법으로는 Lasso(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를 사용하고 있다. Lasso는 회귀 계수들에 L1-제약을 주어 계수 추정치들의 크기를 축소(shrinkage) 시키는 동시에 변수선택도 할 수 있는 추정 방법이다[28,29]. 단 변수선택과 계수추정 이후, 통계적 추론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4. 연구 결과

4.1 발달시기별 진로목표의 특성

학과별 발달시기에 따른 진로목표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학과별, 발달시기별 희망직업의 연봉 차이를 살펴보았다. 두 학과(영어영문학과, 글로벌통상학과)와 네 시기(P1: 초등학생, P2: 중학생, P3: 고등학생, P4: 대학생)에 걸쳐 선택된 희망직업의 분포를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학과 모두 초등학생 시기에 선택한 희망직업의 연봉이 더 큰 분산을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연봉에 구애받지 않고 저연봉에서 고연봉까지 비교적 다양한 연봉의 직업이 선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희망직업의 연봉의 분산은 크게 줄어든다. 한편 통상학과는 영어영문학과보다 고소득 희망직업이 많이 선택되고 있다. 모든 시기(P1-P4)에서 통상학과 학생들이 선택한 희망직업의 평균연봉이 영어영문학과보다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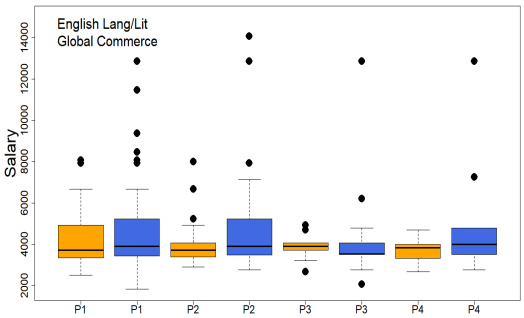

Fig. 2. Annual salary of future dream jobs. Salary is expressed in 10,000 wons.

진로목표 즉, 희망직업의 직업군(진로정보망 커리어넷의 직업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두 학과 모두 전문직을 선호하고 숙련직을 비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영어영문학과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에는 예술분야 전문직(P1: 37.5%, P2: 20.7%), 서비스 전문직(P1: 25.0%, P2: 51.7%)군의 희망직업을 많이 선택하나, 대학생이 되면 비교적 다양한 업종의 직업군(기타: 35.0%, 예술분야 전문직: 15.0%)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 특성상, 특정 직업군 대신 다양한 직업군을 유연성 있게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글로벌통상학과의 경우, 초등학생 때에는 서비스 전문직(37.5%)과 예술분야 전문직(25.0%)군의 희망직업을 선택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경영분야 전문직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부터 희망커리어에 대한 강한 선호가 있었으며, 이러한 선호는 대학 진학 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글로벌통상학과의 시기별 경영분야 전문직을 선택한 비율은 초등학생 시절 12.5%, 중학생 시절 32.5%, 고등학생 시절 45.2%, 대학생 시절 52.5%이다.

발달시기별 희망직업의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학과별 상위 5개의 희망직업을 보면, 초등학생 시절에 제일 선호되는 직업은 교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Fig. 3 참고). 영어영문학과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교사에 대한 선호가 유지되는 패턴을 보였으나, 대학 진학 후 언론

인, 마케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변화를 보였다. 또한 진로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막연한 상태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직업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초학문을 전공으로 하는 학과의 경우, 직업시장과의 진로의 연계성이 모호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 또는 학과 차원에서 이들을 조력하는 취업 진로 지도 및 상담이 필요하다. 반면 글로벌 통상학과의 경우, 중학교 때부터 진로목표가 경영분야 전문직 쪽으로 수렴하고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경영분야 전문직 관련의 희망직업(CEO, 외교관, 무역사, 무역업, 관세사 등) 선택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진학 후에도 이 분야에 대한 뚜렷한 선호를 나타냈다.

진로목표가 발달시기 전체에 걸쳐 얼마나 일관된 경향을 띠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희망직업에 관한 발달시기간 응답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초등학교 시절(P1)의 희망직업이 중학교 시절(P2)의 희망직업과 동일한 비율은 6.8%, 중학교 시절(P2)의 희망직업이 고등학교 시절(P3)의 희망직업과 동일한 비율은 8.3%, 고등학교 시절(P3)의 희망직업이 대학교 시절(P4)의 희망직업과 동일한 비율은 53.5%인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희망직업에 대한 일관성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단 P4의 시점이 갓 대학에 진학하여 전공을 선택한 1, 2학년생임을 감안하면, 약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이 자신의 진로목표와 일치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학 진학대학 진학 이후 희망직업을 변경한 학생들도 전공생의 절반 정도나 된다는 것을 볼 때, 이에 대한 후속 탐색이 필요하다. 변경한 학생들 중 35%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업종을 희망직업으로 선택한 반면, 45%는 희망직업의 업종 자체를 변경하였다. 더욱이 학생들의 20% 가량은 구체적인 희망직업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함"이라는 응답을 하여, 대학 진학 후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대학과 학과에서 학생들이 이러한 상황이 된 이유를 파악하여 적절한 진로지도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4.2 진로목표에 미친 긍정, 부정적인 맥락적 요소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발달시기별로 진로목표 즉, 희망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맥락적 요소'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물·요인들을 확인하였다. Fig. 4는 학과별, 시기별로 주요 긍정적, 부정적인 맥락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두 학과 학생 모두 주로 부모와 교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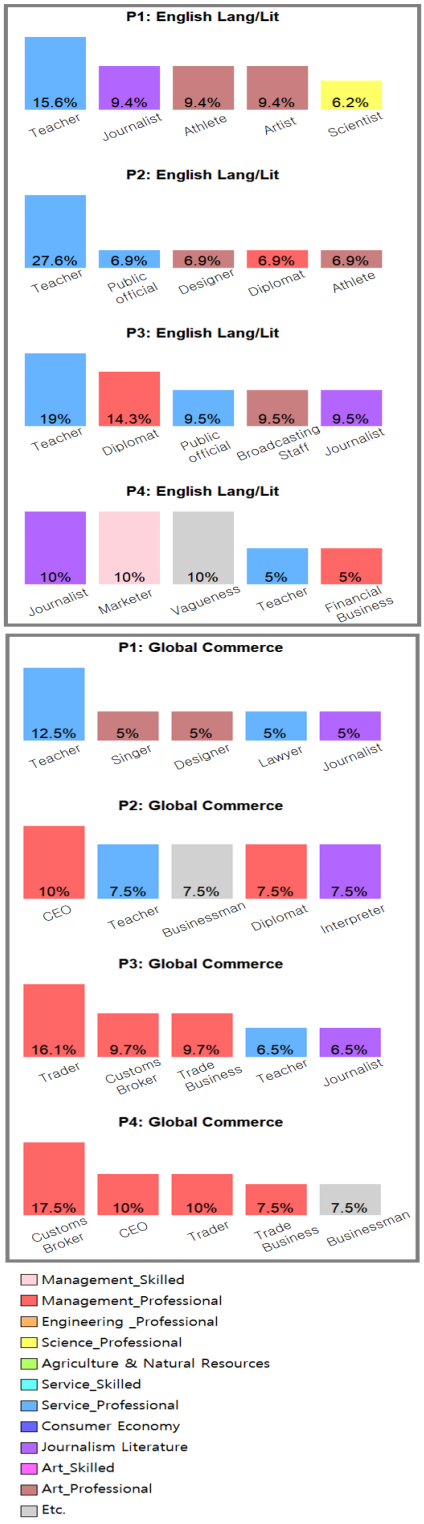

Fig. 3. Top 5 dream jobs by maj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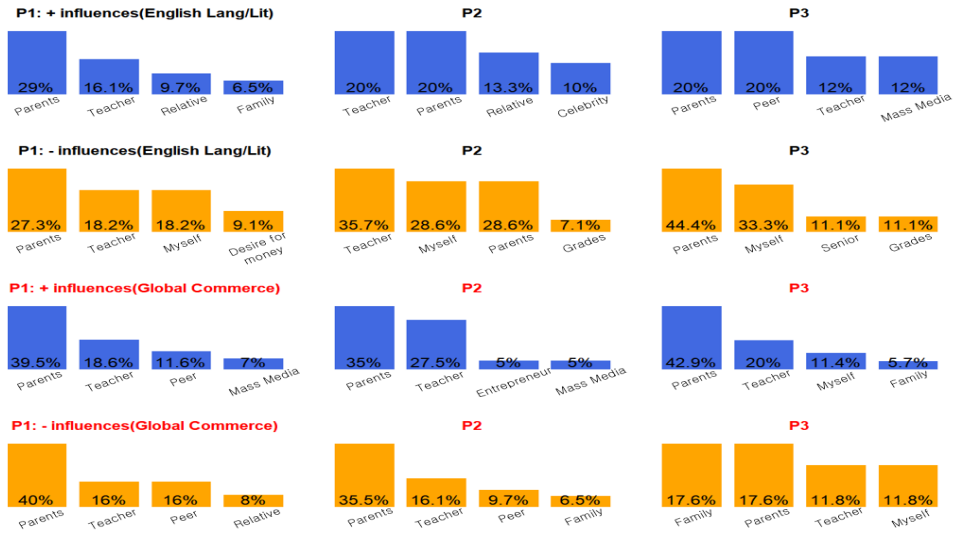

Fig. 4. Main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es in deciding on future dream careers

나타난다. 단, 부모와 교사는 긍정적으로뿐 아니라 부정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즉 부모와 교사가 초등학생의 희망직업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시기에도 교사와 부모의 영향이 모두 크게 나타났지만, 초등학교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사의 영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영어영문학과의 경우, 교사가 희망직업 선택에 긍정적이라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초등 시절 16.1%에서 중등 시절 20.0%로 상승하였으며, 부정적이라 응답한 학생의 비율도 초등 18.2%에서 중등 35.7%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 후, 진로 선택에 있어 부모의 영향은 여전히 크지만 교사의 영향은 다시 줄어들었다. 그 외 대중매체, 유명인사는 긍정적인 영향을, 금전적인 욕구, 학업성적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가족, 친척, 친구, 나(자신)은 긍정적으로 뿐 아니라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주어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직업선호지수(job preference index)를 정의하였다. 직업선호지수는 각 인물(요소)이 해당 희망직업 선택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횟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횟수를 뺀 값으로, 부호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며, 절대값이 클수록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리사"를 희망직업으로 선택함에 있어서, 부모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많다면 지수는 양수로, 반대이면 음수로 계산되어진다. 반면, 긍정, 부정 횟수가 동일하면 직업선호지수는 0으로 중립으로 평가된다.

각 인물(요소)의 직업선호도를 Fig. 5와 Fig.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 영어영문학과, Fig. 6은 글로벌통상학과의 시기별 희망직업과 긍정, 부정적 인물(요소)를 연결시킨 네트워크이다. 노드는 희망직업 또는 인물(요소)을 나타낸다. 희망직업의 연봉은 5000만원 이상의 경우 A로, 4000 이상 5000만원 미만이면 B로, 3000 이상 4000만원 미만이면 C로, 3000만원 미만이면 D로 분류하여, 희망직업을 나타내는 노드의 크기를 달리하였다. 희망직업을 나타내는 노드의 색깔 역시 직업군에 따라 다르게 표시하고 있다. 반면 각 노드를 이어주는 선들은 직업선호지수의 부호에 따라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0)으로 표시하였다.

각 네트워크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요소)을 찾고자 중심도(centrality degree)를 정의하여 계산하였다. 먼저 각 인물(요소)을 나타내는 노드에 연결된 선의 개수를 계산하는데, 이는 해당 인물(요소)이 몇 개의 희망직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희망직업을 나타내는 노드의 총 개수로 나눈 것을 중심도로 정의하고 있다. 영어영문학과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의 중심도가 0.588로 나타났는데, 이는 희망직업의 58.8%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글로벌통상학과의 경우, 초등학교 시기의 중심도는 0.679로 역시 부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시기, 영어영문학과의 중심도는 0.588, 글로벌통상학과의 중심도는 0.720로,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이 높았다.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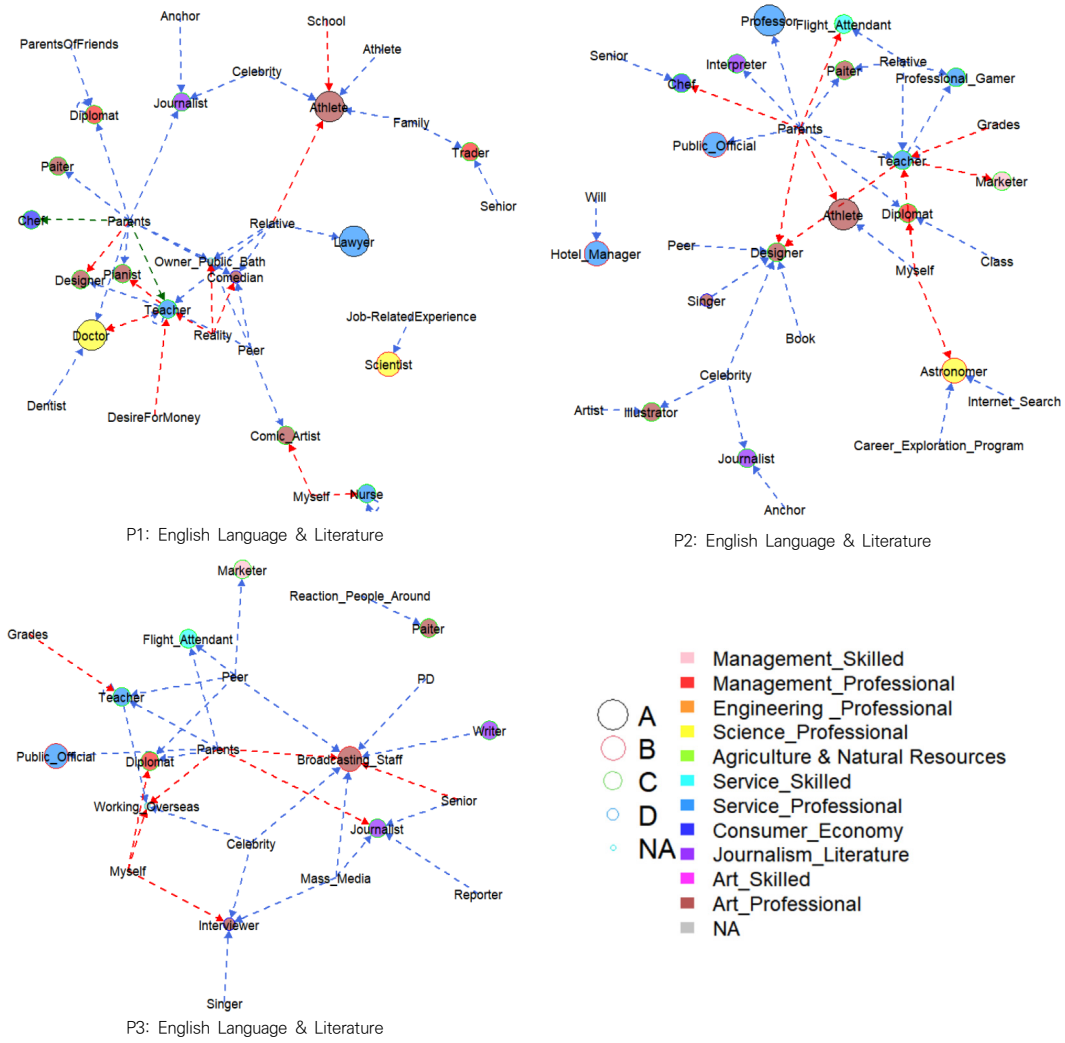

Fig. 5.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influencing career goals for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Blue, red, and green lines represent positive, negative, and neutral influences, respectively.

시기에는 58.3%(영어영문), 73.7%(글로벌통상)의 희망 직업의 선택이 부모와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 인물이 개인의 진로목표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인물이 희망직업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는 디자이너, 요리사(이상 영어영문), 가수, 무역업(이상 글로벌통상) 등의 진로목표형성에 부정적 영향력이 컸으며, 외교관, 화가, 공무원, 피아니스트, 교사(이상 영어영문), 또는 관세사, 사업가, 무역사, 외교관, 의사, 통역사 (이상 글로벌통상) 등의 진로목표형성에 긍정적 영향이 컸다. 전반적으로 경영분야 전문직을 선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사는 피아니스트, 의사, 마케터(이상 영어영문), 통역사, 변호사, 과학자, 관세사(이상 글로벌통상)의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교사, 해외근무, 프로게이머 (이상 영어영문), 교사, 언론인, 펀드매니저, 무역사, 승무원(이상 글로벌통상)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과학분야 전문직을 선택할 때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진로 상담시 전문직 혹은 고액 연봉의 직업 선택에 부정적인 견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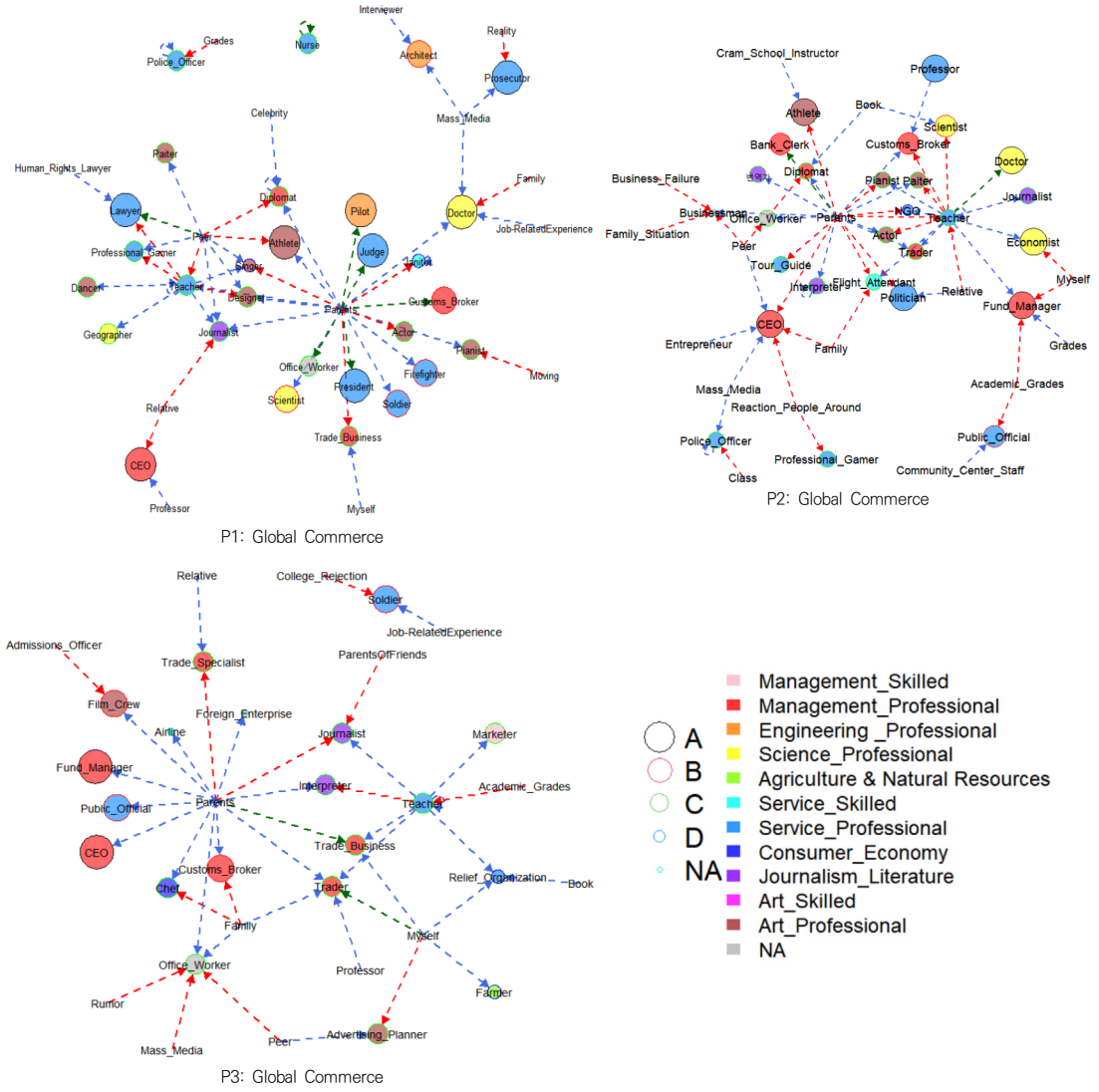

Fig. 6. Positive and negative factors influencing career goals for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Blue, red, and green lines represent positive, negative, and neutral influences, respectively.

4.3 진로포부수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의 진로포부수준형성 즉, 직업에 대한 포부수준이 형성되는데 어떤 요소들이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요소들이 개인의 진로목표의 사회적 지위 즉, 희망직업의 연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설명변수는 발달시기, 맥락적 요소 중 주요 인물의 직업선호지수, 맥락적 요소 중 시대 및 자신의 상황, 개인의 진로관 등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3.2절에서 기술하였듯이, 시대 및 자신의 상황은 응답의 키워드에 따라 여러 요인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었는데, 복수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개의 희망직업에 대해서 여러 요인이 매치될 수 있다. 따라서 가변수(dummy variables) 간의 선형종속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카테고리의 개수만큼 가변수를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대 및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사회적상황"이 언급된 경우 해당 가변수는 1의 값을 언급되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가진다. 개인의 진로관 역시 복수 응답이 가능하므로 응답자의 성향을 나타내는 카테고리의 개수만큼 가변수를 정의하고 있다.

단변량분석(univariate analysis)의 결과가 Table 1

에 제시되어 있다. 임의효과(random effects)를 포함한 혼합모형(mixed effects model)과 일반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el)의 결과가 비슷하여 개인의 고유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 차이는 희망직업의 연봉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글로벌통상학과 학생들이 선택한 희망직업이 영어영문학과의 학생들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820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 희망직업은 초등학생 시기의 희망직업보다 연봉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직업선호지수의 경우, 부모와 나(자신)는 높은 연봉의 선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교사와 친구는 높은 연봉의 선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의 경우 부정적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기준으로 사용한 커리어넷 직업분류에 따르면 고액 연봉의 직종들은 전문직군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고액 연봉 직종들을 진로목표로 정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교사와 친구로 확인이 되었다. 보통 교사들이 학생의 진로진학 문제로 상담을 할 때, 해당 진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지표(성적표나 수행결과물)를 기준으로 상담받는 학생의 현재 성적이나 수행결과를 진단하여 진로방향을 잡아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제시받은 수치들과 정보들이 학생으로 하여금 해당 진로목표를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사회적상황과 개인특질은 높은 연봉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가정상황, 학교(성적 포함), 대중매체, 주변인물, 교외활동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의 직업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주었다. 개인의 직업관 즉, 직업에 대한 인식에 따라 행복추구형, 현실직시형, 성장지향형으로 응답자들을 분류하였을 때, 행복추구형과 성장지향형 그룹은 낮은 연봉의 직업을 선택하는 반면, 현실직시형은 비교적 고연봉의 희망직업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행복추구형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설명변수를 포함한 모형보다 변수선택의 과정을 거쳐 좀더 단순하고 간결한 모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는 잠재적인 다중공선성 문제를 줄이고, 분석 자료의 자유도를 높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개인의 고유한 효과가 크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는 일반선형모형을 가정하였다.

Lasso 변수선택 방법을 이용하여 최종 선택된 모형이 Table 2에 제시되었다. 최종 모형은 총 5개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글로벌통상학과 학생들은 영문학과보다 연봉이 높은 희망직업을 선택하고 있으며, 직업관 중 현실직시형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희망직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사의 지도와 가정환경은 높은 연봉의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행복추구형은 낮은 연봉의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변량분석과 일치하나, Lasso의 추정된 회귀계수 값이 축소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Results of univariate analysis. The baselines are English Lang/Lit(major) and P1(time points).

Response: annual salary (in 10,000 wons)		Estimates	P-values
Major	Global Commerce	821.2 (821.2)	0.01 (0.01)
Time Points	P2	12.5 (13.8)	0.97 (0.97)
	P3	17.6 (17.8)	0.96 (0.96)
Job Preference Index	Parents	100.2 (101.4)	0.67 (0.66)
	Teachers	-494.1 (-484.4)	0.09 (0.10)
	Friends	-520.7 (-500.2)	0.22 (0.24)
	Myself	426.3 (431.2)	0.39 (0.38)
Environmental Factors	Social Situation	342.6 (342.6)	0.48 (0.48)
	Family Situation	-727.1 (-721.9)	0.17 (0.18)
	School	-96.3 (-96.3)	0.76 (0.76)
	Extracurricular Activities	-256.7 (-256.7)	0.50 (0.50)
	Other People	-394.5 (-394.5)	0.24 (0.24)
	Personal Characteristics	273.7 (273.7)	0.38 (0.38)
	Mass Media	-81.9 (-81.9)	0.87 (0.87)
Career Perception	Growth Oriented	-103.7 (-102.4)	0.76 (0.76)
	Happiness Oriented	-714.1 (-713.9)	0.03 (0.03)
	Reality Oriented	508.5 (508.4)	0.12 (0.12)

Numbers without parentheses indicate fixed-effect coefficient estimates and p-values of mixed effects model, whereas numbers in parentheses are associated with general linear model without random effects.

Table 2. The final model using Lasso. The baseline is English Lang/Lit.

	Estimates
Major: Global Commerce	493.8
Job Preference Index: Teachers	-305.9
Environmental Factors: Family	-85.1
Career Perception: Happiness-Oriented	-28.0
Career Perception: Reality-Oriented	183.3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특정전공 대학생들이 해당전공을 선택하기까지 전 학령기에 걸쳐 어떠한 진로발달과정이 있었고, 어떠한 진로목표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전 학령기를 걸쳐 이루어지는 진로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진로상담의 시사점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을 다각도로 조망할 수 있는 질적 도구인 커리어오그램을 사용하여 글로벌통상학과와 영문학과 대학생들이 초·중·고·대학에 이르는 진로발달과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텍스트마이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진로목표가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두 학과 학생 모두 선호하는 진로목표의 직업군이 전문직으로 나타났으며, 숙련직을 비선호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발달시기별로, 두 학과 학생 모두 초등학교 시기에는 교사를 선호하였으나 국제통상학과 학생들은 중학교 시기 진로목표가 경영분야로 변경되었고, 이후 대학 시기까지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영어영문학과 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 시기까지 교사에 대한 선호가 유지되다가 대학에 와서 목표가 다양하게 분산되며, 막연함을 호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과별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시기 교사라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은 홍준의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30]. 그의 연구에서 중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교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30]. 한편, 국제통상학과가 일찍이 학과전공과 유사 분야로 진로목표를 형성한 점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중학교 시기부터 관련 분야로 진로발달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중학교 이전 시기에 이루어지는 진로지도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교육과정에서는 특히 중학교 시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나아가 유·초등학교 단계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경험과 탐색활동을 통해 진로발달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진로포부 즉, 개인이 선호하는 진로목표가 지닌 사회적 지위와 관련하여, 두 학과 학생 모두 초등학교 시기가 고등학교 및 대학시기보다 희망직업의 연봉 분산이 크게 나타났다. 즉, 저연령의 경우 진로포부수준에 대한 인식이 미발달되다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인식이 형성되어가는 진로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31]. 한편, 학과별 비교시 국제통상학과가 영어영문학과 학생보다 희망직업의 평균 연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진로포부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진로발달과정에서 확인되는 학과별 상이한 양상은 향후 전공별,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진로발달과정을 살펴볼 필요를 시사한다. 넷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로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직업의 선택지의 수렴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발달시기간 진로목표 즉, 희망직업에 대한 응답의 일관성을 확인한 결과,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희망직업에 대한 일관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 다만 대학진학 이후 희망직업이 변경된 비중도 전공별 약 절반 정도의 높은 비중이라는 점을 볼 때, 이들의 특성을 고찰하여 적절한 진로지도방안을 제공해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에서 진로목표에 어떠한 긍정적, 부정적 맥락적 요소들이 작용하고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첫째, 발달시기별로 진로목표에 영향을 주는 맥락적 요소 즉, 발달시기별로 희망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력이 큰 맥락적 요소는 부모라는 인물이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달시기별로 맥락적 요소가 진로목표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알아본 결과, 부모의 영향력은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두 크게 나타났지만, 교사의 영향력은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시기에 커졌다가 고등학교 시기에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령기 중 중학교 시기에 교사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개방형으로 질문한 결과, 자신의 진로목표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부모와 교사로 나타났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로부터 수많은 진로발달관련 변인들이 언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진로목표를 실현하는데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인은 부모와 교사라는 매개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역량을 육성하는 방법도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부모 이외의 존재나 요소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매개자가 교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만큼 학생들의 진로역량육성을 위해 학교교육을 활용하는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 유사 직업 희망자들별 진로탐색 심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거나, 희망 진로군별로 묶되 함께 진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직업세계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함양시켜줄 필요가 있다. 셋째, 맥락적 요소가 진로목표형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결과, 영어영문학과의 경우, 부모가 전반적으로 공무원 계통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긍정적인 경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통상학과의 경우, 부모가 전반적으로 경영분야 전문직을 선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교사는 전문직 혹은 고액 연봉의 직업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이는 교사가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일부러 낙담시킨다기 보다는 교사가 진로진학상담을 실시 할 때 통상적으로 성적표 등을 통해 드러나는 학생에 대한 역량지표와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내야 할 역량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교사로부터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역량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진로목표를 타협하게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학령기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평가를 정확히 가늠하지 못한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들로 뒷받침될 수 있다[32-34].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자면,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해 준 객관적인 정보를 학생이 낙담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의 전달방식이 고안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교사-학생 간 진학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전달 및 교환 방식을 연구하여 학생의 진로발달을 돕는 진로지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령기 진로발달과정에서 진로포부수준의 형성에 어떠한 맥락적 요소들이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모든 변인들을 투입하여 직업선호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진로포부수준 즉, 희망직업의 연봉에 학과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글로벌통상학과가 영어영문학 전공 학생보다 희망직업의 연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진로포부수준형성 즉, 높은 연봉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부모, 본인, 본인의 개인적 특질, 사회적 상황, 직업관 중 현실직시형 직업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높은 연봉의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교사,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의 직업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가정상황, 학교성적을 포함한 학교맥락, 대중매체, 주변인물, 교외활동, 행복추구형 직업관과 성장지향형 직업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Lasso 모델로 분석한 경우에도, 글로벌통상학과가 영문학과보다 희망직업의 연봉이 높게 나타났고, 현실직시형 직업관이 상대적으로 희망직업의 연봉이 높은 진로목표를 선택하게 한 반면, 교사와 가정환경은 높은 연봉 직업을 선택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행복추구형 직업관은 낮은 연봉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가정환경으로 인한 요소가 자칫 진로포부형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력을 학교교육과 사회제도를 통해 상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 친구도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대상과의 실제 상호작용시 발생하는 심리내적인 경험들을 탐색하는 연구들을 통해, 진로지도의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특정 대학의 글로벌통상학과와 영어영문학과 학생에 국한하여 자료를 조사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점을 지닌다. 향후, 다양한 국가와 전공, 다양한 연령대별 진로발달과정을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 학령기를 거쳐 형성되어온 진로발달과정을 포착하기에는 방법론적 한계를 지녀왔던 지금까지의 실증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접근법을 활용한 첫 시도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통해 기존의 진로발달이론에서 제안한 연령별 진로발달상의 특징을 질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고, 나아가 이러한 변화양상에 대한 전공별 조망을 시도함으로써 진로발달과정을 조망하는 새로운 관점을 추가하였다. 또한 방법론상으로 본 연구는 진로상담분야를 연구하는 데 새로운 과학적 연구방법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국내 대학생들 및 특정전공생의 진로가 발달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진로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REFERENCES

[1] L. S. Gottfredson.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DOI : 10.1037/0022-0167.28.6.545

[2] J. M. Thorngren & S. S. Feit. (2001). The Career-O-Gram: A Postmodern Career Interventio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9,* 291-303.
DOI : 10.1002/j.2161-0045.2001.tb00957.x

[3] Y. Park & S. Park. (2016). Exploratory Study on the Meaning of Job in University Students: Application of Q Methodolog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5(16),* 45-66.

[4] M. A. Hearst. (1999). Untangling text data mining. *Proceedings of the 37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3-10.
DOI : 10.3115/1034678.1034679

[5] R. Feldman & J. Sanger. (2007). The text mining

handboo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6] E. M. Lim et al. (2017).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unseling for Schoolers*. Seoul: Social Criticism.

[7] D. E. Super. (1955). Transition: From Vocational Guidance to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 3-9.
DOI : 10.1037/h0041630

[8] D. E. Super.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ve*(2nd ed.). SanFrancisco:Jossey-Bass. 197-261.
DOI : 10.1016/0001-8791(80)90056-1

[9] L. S. Gottfredson. (2005). Applying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in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Hoboken, NJ:John Wiley & Sons. 71-100.

[10] C. L. Juntunen & C. E. Even. (2012). Theories of Vocational Psychology. N. A. Fouad (eds.) *APA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Theories, Research, and Method.*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OI : 10.1037/13754-009

[11] K. H. Kim. (2020). A Study of College Students' Career Transion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1(3),* 205-225.
DOI : 10.4094/chnr.2017.23.2.168

[12] C. E. Yu & G. P. Cho. (2012). The Effect of Adult Attachment, Career Barriers,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Career Decision Levels and Career Aspir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2(4),* 143-166.

[13] K. S. Lee, J. H. Choi & H. J. Lee. (2011). Career Development of Korean Science-Gifted Students from Elementary Through High School Years. *Journal of Korea Science and Education, 31(1),* 48-60.
DOI : 10.14697/jkase.2011.31.1.048

[14] H. K. Lee, S. H. Lee & E. Y. Son (2018).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Counseling Research Trends of Youth: Focusing on the Counseling Journal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4),* 621-641.
DOI : 10.22251/jlcci.2018.18.621

[15] A. V. Naidoo, S. L. Bowman & L. H. Gerstein. (1998). Demographics, Csusality, Work Salience, and the Career Maturity of African-American Students: A Causal Model. *Journal of Vocatonal Behavior, 53,* 15-27.
DOI : 10.1006/jvbe.1997.1586

[16] M. A. Diemer & D. L. Glustein. (2006). Critical Consciousness and Career Development among Urban Yout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8,* 220-232.
DOI : 10.1016/j.jvb.2005.07.001

[17] L. S. Gottfredson. (2002).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Compromise, and Self-Creation. In D. Brown (Ed.),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4th ed., pp. 85-148). San Francisco. CA:Jossey-Bass.

[18] S. A. Leung & L. W. Harmon. (1990). Individual and Sex Differences in the Zone of Acceptable Alternativ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153-159.
DOI : 10.14400/JDC.2019.17.3.035

[19] S. H. Kim. (2019). Meanings of Resilience Experienced by Low-income College Students in the Process of Career Development. *Facilities and Environment for Youth, 17(4),* 117-132.
DOI : 10.21032/jhis.2017.42.2.127

[20] K. Roberts & G. Atherton. (2011). Career Development among Young People in Britain Today: Poverty of Aspiration or Poverty of Opportun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Policy Studies, 3(5),* 59-67.
DOI : 10.5897/IJEAPS.9000003

[21] J. H. Lee. (2015).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Predicting Change in Career Planning and Career Interes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10),* 289-316.
DOI : 10.1037/a0027296

[22] B. Y. Jeon. (2003). *A Study of Career Maturity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having the Experience in Part-time Job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23] C. N. Park & J. S. Do. (2007). The Effects of Adolescents` Part-time Job Experience on School Mal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4(5),* 345-374.
DOI : 10.20993/jSSW.41.1

[24] K. Singh, M. Chang & S. Dika. (2007). Effects of Part-time Work on School Achievement during High School.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1(1),* 12-23.
DOI : 10.3200/JOER.101.1.12-23

[25] S. H. Park & H. J. Park. (2009). Coping as a Mediator between Career-related Str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6(1),* 67-81.
DOI : 10.14400/JDC.2019.17.3.353

[26] H. W. Kwon. (2020).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Career Development Process of New Entrants to the Workforce through the Early Admission Officer System: Focus on the Protean Career Attitud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1(1),* 187-217.
DOI : 10.15854/jes.2020.3.51.1.187

[27] B. H. Baltagi. (2008).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Fourth ed.). New York: Wiley.

[28] R. Tibshirani. (1996). Regression Shrinkage and

Selection via the lasso,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B (methodological), 58(1),* 267-288. DOI : 10.1111/j.2517-6161.1996.tb02080.x

[29] T. Hastie, R. Tibshirani & M. Wainwright. (2015). *Statistical learning with sparsity: the lasso and generalizations.* Boca Raton: CRC press.

[30] J. Hong. (2015). Research for Job Prefer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Development of Science Program for Free Semester. *Education Development, 35(1),* 1-15.

[31] J. H. Choi & G. N. Lee. (2017). A Study on the Zone of Acceptable Alternatives and Occupational Aspir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3(2),* 83-100.

[32] R. J. Tiemey & A. Herman. (1973). Self-estimates of ability in adolesc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0,* 298-302. DOI : 10.1037/h0034828

[33] R. P. O'Hara & D. V. Tiedemann. (1959). Vocational self-concept in adolesc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 292-301. DOI : 10.1037/h0039934

[34] B. W. Westbrook, R. W. Buck, D. C. Jr., Wynne & E. E. Sanford. (1994). Career maturity in adolescenc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Self-ratings of Ability by Gender and Ethnicit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 125-161. DOI : 10.1177/106907279400200203

최 정 아(Jung-Ah Choi) [정회원]

· 2017년 2월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 2018년 9월 ~ 현재 : 금오공과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조교수
· 관심분야 : 학업 및 진로상담, 심리상담의 치료적 변화기제
· E-Mail : pecja1@kumoh.ac.kr

서 준 호(Jun-Ho Seo) [학생회원]

· 2016년 3월 ~ 현재 : 금오공과대학교 응용수학과 학부생
· 2016년 3월 ~ 현재 : 금오공과대학교 Applied Statistics Laboratory의 학부연구원
· 관심분야 : 빅데이터, 텍스트마이닝, 데이터마이닝
· E-Mail : 20160612@kumoh.ac.kr

양 지 연(Ji-Yeon Yang) [정회원]

· 2010년 7월 : 일리노이주립대학교 통계학과(통계학박사)
· 2010년 7월 ~ 2011년 6월 : Claremont McKenna College 방문조교수
· 2011년 7월 ~ 2014년 2월 : MD Anderson Cancer Center 연구원
· 2014년 3월 ~ 2019년 3월 : 금오공과대학교 응용수학과 조교수
· 2019년 4월 ~ 현재 : 금오공과대학교 응용수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빅데이터, 베이지안 분석, 바이오마커 개발
· E-Mail : jyang@kumoh.ac.kr